

■ 영화평 ■

<하얀 외침, 검은 태양>, <증오>, 그리고
<클래스>
-영화로 본 프랑스의 이민자들-¹⁾

박 단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I

19세기 말 이래로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한 프랑스는 오늘날 이민자 문제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민의 역사가 오래이다 보니, 프랑스에 들어 온 이민자들도 매우 다양하여, 그 출신 국가, 인종 혹은 종교도 상이하다. 이러한 상이성은 프랑스혁명 이래 단일한 공화국을 추구해 온 프랑스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이들 이민자들로 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았으며,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가?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 프랑스에 들어 온 이민자의 성격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프랑스는 오늘날 이민자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답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프랑스인들이 이들 문제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영화는 허구적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반적인 역사 사료에서 읽을 수 없는 부분을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위 세편의 영화는²⁾ 더욱이 각각 나름대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1) 이 세 편의 영화에 대한 평을 집필함에 있어, 필자가 기준에 발표한 두 편의 영화(<하얀 외침, 검은 태양>과 <증오>) 분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2) <하얀 외침, 검은 태양>을 분석한 논문은 『역사와 문화』 2호에, <증오>를 분석한 논문은 『프랑스사 연구』 20호에 각각 게재하였다. <클래스>에 대한 글은 『프랑스사 연구』 22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하얀 외침, 검은 태양>(이하 하얀 외침)은 1930년대 경제위기 당시 프랑스 북부지방을 배경으로 한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파드칼레(Pas-de-Calais)도의 에스카르펠 광산 파업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소재로 하였다. 민족차별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추방을 감수한 채 벌이는 폴란드 노동자들의 파업, 이는 바로 경제위기가 한창인 프랑스의 1930년대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종류의 정치파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극히 예외적일 수 있는 소재를 영화화 한 <하얀 외침>은 이러한 의미에서 어느 역사책보다도 그 시대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가 2차 대전 이전의 유럽계 노동자와 프랑스인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한 것이라면, <중요>는 프랑스의 대표적 이방인들, 즉 비유럽계인들과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유대인, 아랍인 그리고 흑인이 주인공들이다. 이 영화는 1990년대 만들어진 영화로써 파리를 비롯한 대도시 근교(이하 방리유banlieue)의 불안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특히 방리유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젊은이들의 삶과 고뇌가 잘 그려져 있는 <중요>는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 파리와 방리유, 그리고 이들 이민자 젊은이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두 영화와 차이가 있다면, 이 영화에는 유대인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클래스>의 배경은 마침내 파리 시내이다. 프랑스 북부지방에서 방리유로 그리고 마침내 파리 시내 한 중학교 교실이 배경이 된다. 2008년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실제 중학교 교사인 프랑수아 베고도(François Bégaudeau)가 자신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고 영화에서 실제 주인공 교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영화의 특징은 무엇보다 서로 소통하고 있지 못하는 주류사회 선생님들과 이민자 2, 3세로 대표되는 학생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이들 젊은 학생들 간의 소통 부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해답은 없다. 그렇지만 2000년대 프랑스가 이민자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바를 그대로 영화 한 편에 담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화 세 편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자.

II

<하얀 외침(원제: Le Brasier 벌정계 단 숯불 ; 정열 ; 열정)>은 에릭 바르비에(Eric Barbier) 감독이 1992년에 만든 영화로서, 감독의 명성이나 출연진, 흥행 등의 측면에서 다른 대작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평범한’ 영화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적어도 노동계와 당시의 시대상과 관련해서 볼 때,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제작비 투입, 감독 및 출연 배우의 명성으로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었던 1994년작 <제르미날(Germinal)>³⁾ 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하얀 외침>은 국적이 서로 다른 노동자들 사이의 대립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영화에서 부각되는 점은 그 동안 전통적인 노동운동사에서 제외시켰던 소수 민족의 이해이다. 여기에 덧붙여 <하얀 외침>은 노동운동이 절정기에 있었던 1930년대 프랑스 노동운동의 복잡한 정황을 잘 그리고 있다는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영화가 그리는 경제공황하의 프랑스 노동자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전통적인 반부르주아적 성격뿐만 아니라 반국제주의적인 성향까지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는 공식적인 사료에서는 잘 읽을 수 없던 부분으로, 비록 길지 않은 한편의 영화를 통해서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의 노동자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 노동자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거주하던 이민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중, 삼중으로 짜여진 망탈리테를 감추고 있는 이 <하얀 외침>은 그만큼 ‘두터운’ 영화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로 돌아가 보자. 1차 세계대전 동안 프랑스는 전쟁으로 인하여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 약 400만의 노동력을 상실한다. 가뜩이나 19세기 이래 출산율의 저하로 노동력의 부족을 상쇄할 수 없었던 프랑스로서는 적극적으로 외국 노동자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탄광은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은 프랑스 광부들을 대체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력의 수급을 원했다. 이는 1920년 내내 프랑스 제강산업이 석탄부족을 불평하며 40%까지의 증산을 요구했을 때 더욱 그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1919년부터 폴란드 노동자들은 프랑스-폴란드 협약(la convention franco-polonaise, 1919년 9월 3일)에 의해 집단적으로 프랑스 탄광, 특히 노르(Nord)道,

3) 클로드 베리 감독, 제라르 드 파르디유, 미유미유, 그리고 광부 출신 가수인 르노 주연.

파드칼레道에 정착하게 된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폴란드 쪽에서 찾는다면, 이 불행한 국가가 당시 극심한 실업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 동안의 ‘출구’였던 미국과 독일이 당시 이민 도입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1922년과 1926년 사이 폴란드인들은 자신들의 ‘출구’로서 프랑스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제 폴란드 이민은 프랑스-폴란드 국가 간의 협약 아래 정부차원에서 조직되었으며, 마침내 그 수는 <하얀 외침>의 시대배경인 1931년에 50만을 넘게 된다.

왜 프랑스인 노동자들은 폴란드인을 차별, 혐오하는가? 50만 명의 폴란드 노동자 가운데 상다수가 북부 광산지역에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우선 수적인 면에서 폴란드인들이 점차 두려워졌다. 영화의 배경인 에스카르펠 탄광은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곳으로 이 문제를 더욱 극적으로 몰고 간다. 특히 영화가 시작되는 1931년은 매우 의미가 깊은 시점이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제 공황의 여파가 프랑스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시점이 1931년인 것이다. 사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공황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프랑스만 유일하게 ‘행복한 섬(ile heureuse)’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도 더 이상 세계 체제에서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는 실업률의 증가에서부터 나타났다. 주인공인 빅토르의 가족들이 폴란드로부터 온다는 말에, “이러다 프랑스를 집어삼키는 것 아냐?”라는 한 프랑스 노동자의 반응은 당시 이들의 입장을 단적으로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인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들 앞에서 이제 자신들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프랑스인들보다 훨씬 나쁜 노동조건과 적은 임금을 감내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경제위기로 일자리까지 부족하게 되었으니 프랑스 노동자로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마침내 고용주 차원에서도 폴란드 노동자들이 반감지만은 않게 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열광적으로 환영받았던 외국 노동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수천 명씩 강제 귀국하게 되었던 것이다.

폴란드인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적대감은 이처럼 노동자로서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프랑스인의 배타적인 민족감정을 또한 읽어야 할 것이다. “더러운 폴란드놈과 놀아날거야, 지저분한 계집애. 레두!

당신의 귀여운 조카딸이 폴란드놈하고 놀아난다면요?” “폴란드놈들, 쓰레기같은 놈들” “언젠가는 폴란드놈들을 모두 박살내고 말테야, 두고 보자고.” 자신이 좋아하는 알리스가 폴란드인인 빅토르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폴란드인에 대한 증오를 더욱 키워가는 에밀의 말들 속에서 우리는 프랑스인의 폴란드인에 대한 적대감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말에서 폴란드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어느 한 개인만의 일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폴란드인에 대한 배척 감정이 당시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이방인에 대한 차별감정은 인류의 보편적 감정일 것 같기도 하다. 비록 경제위기 시절이기는 하지만, 같은 유럽인이고 종교마저 같은 폴란드의 노동자들에게 프랑스인들이 가한 민족차별이 그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들과 피부색과 종교마저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차별은 어떠하겠는가? 더욱이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프랑스인들이 대하는 아랍인, 흑인에 대한 입장은 그 정도를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그 상상을 이미지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증오>이다.

<증오(La Haine)>는 1995년 마티유 카소비츠(Mathieu Kassovitz) 감독이 만든 영화로, 영화 상영 10년 만에 영화 내용과 매우 흡사한 소요사태가 파리근교에서 재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카소비츠가 제시하는 주인공들과 2005년 소요의 주인공은 다르다. <증오>의 주인공은 세 부류의 ‘인간’이며, 이들 모두 프랑스의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 명은 아랍계 사이드(Saïd), 또 한 명은 블랙 아프리카인 위베르(Hubert)이며, 마지막 한 명은 유대인인 빈쯔(Vintz)이다⁴⁾. 2차 대전 이후 프랑스 극우파의 제1의 적이 된 아랍인, 그리고 ‘영원한 노예’ 흑인, 또 인류 역사상 ‘영원한 이방인’이라 불리는 유대인이다. 2005년도의 주인공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랍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블랙 아프리카 출신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요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망사건의 희생자도 모리타니 출신의 흑인 청소년과 튀니지 출신의 마그레브 소년이다. 하지만, 유대인은 이 당시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카소비츠가 왜 유대인을 이 영화의

4) 실제 배우의 이름은 각각 사이드 타그마우이(Saïd Taghmaoui), 위베르 쿤데(Hubert Koundé) 그리고 뱅상 카셀(Vincent Cassel)이다.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출연시켰는지, 그것도 현실과 동떨어지게끔 아랍계 혹은 흑인과 사이좋은 유대인을 형상화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감독 본인이 유대인 이어서일까? 현실과 달리 소수자끼리 유대감을 갖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을까? 우리는 이민이라는 주제에 몰두하기 위해 유대인 문제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겠다.

<중요>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방리유이고, 나아가 방리유와 파리의 비교라고도 할 수 있다. 사이드, 빈즈 그리고 위베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대도시 근교라 할 수 있는 방리유이지만, 이곳은 사실 이민자들만의 공간은 아니다. 그렇지만 영화 속의 방리유는 이민자들만의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폭력이 난무할 때의 방리유는 ‘프랑스인들’에게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마치 프랑스인과 이민자를 구분하는 요소로 설정되어 있는 느낌마저 든다.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 대단히 방리유는 주류 프랑스인들에게 두려운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10년 동안 그 감정은 더욱 커져갔다.

한편, 파리는 방리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정된 그리고 구도가 잘 짜인 도시이다. 이들에게는 경찰이 자신들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 생경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상에서 자연스럽다 못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 이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프랑스식 이름과 이들의 외모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처럼, 이들이 파리의 갤러리에서 천박스럽고 소란스럽게 구는 것은 파리지앵에게는 더욱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보였다.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자동차 절도 과정에서 자신들을 도와주는 술주정뱅이 정도이다. 그 만큼 이들은 딱 짜인 공간 속으로는 좀처럼 후비고 들어갈 수가 없다. 심지어는 백인들만이 사는 아파트 건물 속으로도 쉽게 들어가기 힘들다. 그나마 백인과 외모가 흡사한 유대인 빈즈가 인터폰을 누르는 것이 다소 자연스럽고, 성공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 사이드도 공감한다. 이처럼 방리유의 청년들에게 파리와 방리유는 다르다. 아 니 전혀 다른 세계이다.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인종차별의 극치는 사이드와 위베르가 경찰에 구속되었을 때 나타난다. 프랑스 경찰의 고문은 위베르가 “우린 누가 보호하는 데?”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마치 비웃는 듯하다. 경찰이 하는 말은 그야말로 생물학적 인종주의의 극치이다. 흑인인 위베르에게 “발을 썩보

시지! 네 고향에서는 자주 그런다며?”라고 하는 말은 마치 흑인을 야자수 따는 원숭이 정도로 비하하는 행위로 보인다. 아랍계인 사이드에게는 “사이드가 프랑스 사람 이름인가?”라는 말을 함으로써 주류 프랑스인이 아닌 이민자에게 모욕감을 준다. 사이드는 혼란스럽다. 이민자들이 처해 있는 난처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영화는 ‘수줍은’ 이민 1세대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이민 2세대들이 주인공이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학교를 다니지도, 그렇다고 직장에 다니지도 않는 현재의 이민자 2세대 대부분의 모습이다. 영화를 만든 지 15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상황은 그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그대로 사회에 대한 증오로 표출된다. 그렇다고, 영화가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도 않는다. 다만 주류 프랑스인과 이들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줄 뿐이다. 달리 보면, 영화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절반이 욕설과 외설적인 내용으로, 방황하는 이 젊은 영혼들에게 중요한 것은 차별에 대해 저항하는 투쟁의식도 아니고, 현재의 암울한 현실로부터 탈출하려는 움직임도 아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친한 동료 압델 이차하가 경찰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마침내 죽어간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복수를 다짐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은 당신들의 것”인가? “세상을 우리들의 것”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 가득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영화 <클래스>가 그 가능성의 일부를 제시해 준다. 수업은 앞의 두 영화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선, 프랑스인과 이민자 사이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얀 외침>의 프랑스인과 폴란드인은 둘 다 노동계급으로 일자리를 두고, 또 한 여자를 두고 갈등하는 사이로 묘사된다. 하지만, <클래스>에서는 프랑스인 선생님과 이민자 출신 학생의 구도로 엮여있다.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반드시 주류 프랑스인과 이민자의 관계로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수업시간 동안 선생과 학생의 보이지 않는 긴장상태는 유지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선생님들 속에서 유색인종을 발견할 수 없다는 면에서 주류와 비주류의 관계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또한 <중요>가 주류 프랑스인과 이민자 2세대들과의 ‘중요’, 그리고 유대인, 흑인, 아랍인 상호 간의 ‘연대’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면, <클래스>에서는 직접적 투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선생

과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이 아닌 교실 속에서의 긴장 관계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클래스>라는 영화에서 이민자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는가? 일단 이 학교가 'ZEP(교육우선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학교와 프랑수아라는 선생의 학생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영화 속의 교실이 프랑스 사회를 대변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프랑수아의 교실은 그야말로 인종 전시장과 같다. 언뜻 눈에 들어오는 국적만 해도, 모로코, 말리, 중국, 터키 그리고 앙티유 등 프랑스의 해외영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나라 출신의 아이들과 축구 이야기가 결합될 때, 교실 안은 그야말로 월드컵 응원단의 축소판이 되고 만다. 그 만큼 교실은 프랑스 사회의 축소판이다.

프랑스는 1981년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집권하면서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우선지역'을 설정하였다. 즉 '학업실패 비율이 높은 지역에 선별적으로 교육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초 4년간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제도의 수정 보완이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첫 시행기관은 360여개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곳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이 부여됨으로써 교사 수급에 커다란 문제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한 통계에 따르면, 3년 이상 근무하기를 원하는 교사가 거의 없고, 신입교사의 경우는 특별한 사명감 없이 단순 직업으로 여긴다는 조사도 있다. 주인공 프랑수아가 4년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버릇없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지도의 의지가 있는 것은 예외일 수도 있다. 또한 영화에서 보이는 학부모 상담, 기본 어휘에 대한 교사의 친절함 지도 등은 '교육우선지역'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일반 학교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에서의 상황은 조금 더 특수해 보인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부와 학교의 노력의 결과 마침내 <클래스>는 평화롭고 조화롭게 마칠 수 있었다. 교사와 학생은 그 간의 갈등을 뒤로한 채 축구를 하며 '다함께'를 외친다. 사실, 어떻게 이들이 갈등을 봉합하고 '다함께'를 외치는지 영화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마치 사회가 구체적 해결

<하얀 외침, 검은 태양>, <중오>, 그리고 <클래스>

책을 제시하지 않고 사회통합을 외치듯이 말이다. 학생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인의 정체성’을 놓고 갈등을 벌인 칼과 나머지 학생들,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슐레이만, 중국 출신 웨이를 ‘오스트리아인’이라는 단어도 알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유럽계 학생. 이처럼 다양한 구성원과 그들이 내뿜는 생각들로 혼란스러워진 교실. 그러나 이들도 학기말에는 교사, 동료와 함께 ‘다함께’를 외친다. 어느 하나도 해결되었다는 징표를 찾아보기 힘든 상태에서 말이다. 어찌면, 이 영화는 학교와 교사의 노력 과정을 해결의 실마리로 보여주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마치 해결책을 찾는 것은 누구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원하다는 듯 말이다.

III

프랑스 이민의 역사를 영화 세 편을 통해 훑어보았다. 세 편은 물론 일관되게 구성된 것도 아니고, 또 이민과 관련된 영화가 이 세 편화가있는 것도 아니며, 이 영화들이 프랑스 내 이민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작들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들은 오늘날 프랑스가 안고 있는 이민문제와 훗들은전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작처럼 여겨진다. <하얀 외침>이 유럽계 이민자와 프랑스인과의 갈등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면, <중오>는 2차 대전 이후 새로운 이민자들이 영화들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불거진 정주 이민자들의 사회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클래스>는 훗들갈등의 시발인 성년 이전의 이민자 자녀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들갈등, 프랑스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사실 <하얀 외침> <중오> <클래스>가 아니었다라면, 제3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들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이민자의 내면을 그리 깊게 이해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책을 통해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측면과 별도로 이미지를 통해 그리고 그들의 대사, 때로는 <클래스>와 같이 그들의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대사를 통해 그들 마음속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위를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자.

e-mail: dahnpark@hansung.ac.kr